

위반의 형식을 통한 계몽의 기획

— 「썸하늘」론

이 하 은*

요약

근대계몽기 소설 연구 쟁점 한가운데에 놓인 작가 중 하나가 신채호다. 신채호의 문학적 면모를 부각하며 고전문학과 근대문학의 사이, 혹은 담론의 충돌이 거센 근대계몽기에 문학가 '신채호'를 배치하려는 시도들이 선행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신채호의 글쓰기가 “근대문학과 근대문학이 아닌 것, 문학과 문학이 아닌 것 사이”에 자리한다는 이유로 이를 문학사에 포괄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곤 한다. 지금-여기에서 문학자로서 '신채호'를 호명하고, 문학사적 연속성 안에 '신채호'를 위치하는 작업이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그의 소설이 지닌 문학적 성과와 그 의미를 새롭게 발굴해야 할 것이다.

신채호의 소설은 근대로의 이행과 사상의 유입 등과 같은 내용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내용을 담기 위한 형식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전한다. 신채호는 고전소설과 신소설이라는 두 양식을 모두 거부하며 소설이 지향해야 할 형식을 모색했다. 특히 신채호는 작가의 사상적 변화에 따라 소설의 내용과 형식이 급변해 하나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이 소설이라는 장르의 형성 과정과 유사하다면, 신채호 소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그것의 문학사적 가치를 재고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썸하늘」이 규약을 위반하여 허구를 생성하는 방식과 허구를 통한 계몽을 구현하는 '동경의 형식'과 형식의 효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썸하늘」의 '序'는 두 가지 위반의 형상을 통해 사유의 실험을 단행하기 위한 '허구'를 창조한다. '허구'는 작가가 추구하는 이상적 가치를 공동체의 보편적인 소망으로 확대하기 위해 매개되어야 할 공간이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형식이 '동경

*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의 형식'이다. 동경의 형식은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집단의 이상을 담지한다.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자아는 국가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정체성, 즉 집단적 정체성에 해당한다. 「썬하늘」이 허구를 생성하는 방식에는 근대적인 문학의 면모가 나타나지만, 궁극적으로 그 형식은 집단적 이상을 구현하는 주체를 향해 있다. 이러한 면에서 「썬하늘」은 근대적인 개인을 창조하는 근대 문학의 글쓰기 단계로까지는 이행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이야말로 근대계몽기의 소설로서의 「썬하늘」의 특성과 문학사적 연속성을 담보할 텍스트로서의 「썬하늘」의 가치를 드러내는 지점이다.

주제어: 근대계몽기, 신채호, 「썬하늘」, 허구, 위반, 동경의 형식

목차

1. 서론
2. 규약의 위반에서 발생한 허구의 공간
3. 동경의 형식과 영웅의 모험
4. 이상적 주체(들)의 확립과 계몽의 발아
5. 결론

1. 서론

근대계몽기는 사회역사적 현실의 위기와 맞물려 담론의 역동성이 두드러진 시기이다. 국가의 존속이 불투명한 시기에 많은 지식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노력했다. 이로 인해 이 시기에는 '사상적 착종'¹⁾뿐 아니라 담론의 혼재가 매우 극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다양한 담론들이 교차하며 생성된 지층을 반영하는 말 중 하나가 문학, 좁게는 소설이다. 동양에서 문학은 우주나 인간의 원리를 표상하는 통로이자 희미해져가는 이상적 가치를 구현할 방편으로 인식되었다. 그

1) 장노현, 『개화기의 서사 풍경』, 역락, 2019, 107면.

러나 1900년대부터 문학은 교육이념과 연관되며 지식을 축적하는 계몽의 도구를 의미하게 된다.²⁾ 특히 소설은 근대계몽기에 유통되던 사상이나 형식들을 포괄하는 잡식성에 기반하여 세계를 혁신할 지침을 최대한으로 실는 문학 양식으로 주목받았다. 짧은 시기임에도 영웅 전기, 우화, 신소설 등 하위 양식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분화했던 독특성은 근대계몽기에 서사 양식에 부여된 중요성을 반증한다. 신소설은 기존 소설과는 다른 형식과 내용의 새로움을 근거로 하여 근대계몽기의 소설지형도에 굳건한 위치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을지문덕」, 「이순신전」 등 허구적 충동이 미약한 작품, 또는 허구적 충동이 드러남에도 미적 완성도가 부족한 작품들 지도 내부에 포괄할 것인가는 여전히 연구계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³⁾

근대계몽기 소설 연구 쟁점 한가운데에 놓인 작가 중 하나가 신채호다. 신채호는 일반적으로 독립운동가, 역사가, 사상가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와 동시에 신채호는 「을지문덕」, 「최대통전」, 「이순신전」과 같은 역사 전기, 「썩하늘」과 「용과 용의 대결전」, 「백세노승의 미인담」 등의 소설을 창작한 작가이기도 하다. 신채호의 문학적 면모를 부각하며 고전 문학과 근대문학의 사이, 혹은 담론의 충돌이 거센 근대계몽기에 문학가 ‘신채호’를 배치하려는 시도들이 선행되었다.⁴⁾ 선행 연구들로 인해 신채호의 문학적 경향을 구분하는 시기나 신채호의 논설에 입각하여 소설관을 규명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된 듯하다. 그러나 여전히 신채호의 글쓰기가 “근대문학과 근대문학이 아닌 것, 문학과 문학이 아닌 것 사이”⁵⁾에 자리한다는 이유로 이를 문학사에 포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되곤 한다.⁶⁾ 신채호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사상을 쇄신해 나

2) 김동식, 『한국 근대 문학의 궤적』, 소명출판, 2023, 123면.

3) 양진오, 『한국 소설의 형성』, 국학자료원, 1998, 25면.

4) 김현주, 『단재 신채호 소설 연구』, 소명출판, 2015, 16면.

5) 정영훈, 「문학과 정치 혹은 문학의 정치: 신채호 소설의 정치적 가능성」, 『민족문학사연구』 제46권,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122면.

6) 신채호의 경우 작품이 미완성이거나 미발표된 것들이 많다는 점, 미적 수준이 높지 않다는

갔고, 그러한 정신을 담은 형식을 계속 바뀌어나갔기 때문에 그를 설명할 하나의 키워드를 발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또, 소설의 효용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하부 형식들로 인해 그의 소설을 문학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신채호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 당시 소설은 국가적 위기, 근대로의 급격한 이행이라는 과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던 글쓰기였다. 이를 위해 근대계몽기의 ‘소설’은 현재의 정의와는 달리 다양한 형식의 글쓰기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⁷⁾ 또한 근대계몽기에 신문연재소설을 창작한 작가들 중 문학창작 방법을 전문적으로 학습한 지식인은 매우 드물었다.⁸⁾ 이로 인해 근대계몽기에 등장한 서사 양식들은 근대소설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면이 있다.⁹⁾ 즉 신채호 소설의 한계는 작가에게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시대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로버트 솔스와 로버트 켈로그는 서사 형식이 “생물학적 과정과 변증법적 과정이 교차”¹⁰⁾하는 위치에서 발달한다고 말했다. 근대계몽기 소설의 지형도를 그리는 여러 유형의 소설들은 이러한 서사 형식의 특징을 매우 역동적으로 보여준다. 이 중 신채호의 소설은 고전소설, 신소설, 이광수 이후의 소설 어디에도 분류하기 어려운 독특함이 있다. 더불어 신채호의 소설만을 한정해서 보더라도 그것을 어느 하나의 형식으로 규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면이 있다. 신채호의 소설은 근대로의 이행과 사상의 유입

점을 들어 그의 작품을 문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들이 있다.

- 7) 1900년대에는 자국어로 쓰였다는 가치를 공유한다면 어떤 글쓰기라도 소설로 볼 수 있었다.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2012, 133면.)
- 8) 권영민,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 재론」, 『인문학 연구』 제17호, 경희대 인문학연구소, 2010, 7면.
- 9) 한기형, 「신소설의 양식 특질」, 『대동문화연구』 제33권,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8, 161면.
- 10) 로버트 솔스·로버트 켈로그, 「서사물의 전통」, 『현대 소설의 이론』, 최상규 옮김, 예림기획, 2007, 60면.

등과 같은 내용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내용을 담기 위한 형식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전한다. 특히 신채호는 고전소설과 신소설이라는 두 양식을 모두 거부하며 소설이 지향해야 할 형식을 모색했다.

초기 신채호 작품인 「을지문덕」이나 「이순신전」은 사실지향적인 전(傳) 양식을 토대로 하여 애국계몽의 기획을 드러낸 예에 속한다.¹¹⁾ 그러나 「꿈하늘」과 「용과 용의 대결전」에 다다르면 허구성이 강화되며 이전보다 소설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채호 소설에 나타난 형식적 혼재와 변화가 소설이라는 장르의 형성 과정을 반영한다면, 신채호 소설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하며 문학사적 연속성을 확보하는 작업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첫 작업으로 본고는 신채호의 「꿈하늘」¹²⁾을 통해 신채호 소설이 지닌 근대적 면모를 밝혀보고자 한다. 「꿈하늘」은 신채호의 소설 중 가장 완성도가 높고, 그의 민족사관이 잘 투영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¹³⁾ 그러다 보니 「꿈하늘」에 대한 연구 대부분은 작가 신채호에 중점을 두어 의미를 해석했다.¹⁴⁾ 「꿈하늘」의 ‘한놈’과 신채호를 동일시하여 「꿈하늘」을 자전체 소설로 규정하고 「꿈하늘」에 신채호의 민족주의 사상이 어떻게 투영되었는가를 분석한 경우가 그러하다. 「꿈하늘」에 나타난 미적 형식에 중점을 둔 연구 역시 신채호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¹⁵⁾

11) 김찬기, 『한국근대소설의 형성과 전』, 소명출판, 2006, 89면.; 양진오, 앞의 책, 61면.

12) 본고는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에서 2008년에 발행한 『단재 신채호 전집』 7권 『신채호문학유고선집』에 수록된 「꿈하늘」을 텍스트로 삼는다. 본문 인용할 때에는 면수를 기입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다.

13) 이상진, 「신채호의 <꿈하늘> 연구」, 『연세어문학』 제28권,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1996, 86면.

14) 김병민, 『신채호 문학 연구』, 아침, 1989; 조정래, 「신채호의 「꿈하늘」에 대한 연구」, 『논문집』 제21권, 서경대학교, 1993; 김현주, 「단재 신채호 소설 <꿈하늘>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 『한민족어문학』 제65집, 한민족어문학회, 2013; 방민호, 「단재 신채호의 문학사적 의미소설 「꿈하늘」에 나타난 「장」, 「무장」과 관련하여」, 『서정시학』 제29권 3호, 계간 서정시학, 2019; 이상진, 「신채호의 <꿈하늘> 연구」, 『연세어문학』 제28권,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1996; 진병준, 「신채호의 「꿈하늘」에 나타난 민족주의 연구」, 『인문논총』 제28권,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1;

많은 연구 성과가 증명하듯이 신채호의 소설을 해석할 때, 작가 신채호를 배제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의 소설을 더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신채호를 소환하여 해석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문학자로서 ‘신채호’를 호명하고, 문학사적 연속성 안에 ‘신채호’를 위치하는 작업이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그의 소설이 지닌 문학적 성과와 그 의미를 새롭게 발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학적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본고는 「꿈하늘」에 혼재된 전근대적, 근대적 형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꿈하늘」이 규약을 위반하여 허구를 생성하는 방식과 허구를 통한 계몽을 구현하는 ‘동경의 형식’과 형식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본고는 「꿈하늘」 ‘序’를 통해 근대적 글쓰기가 발아하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꿈하늘」의 ‘序’는 두 가지 위반의 형상을 통해 사유의 실험을 단행하기 위한 ‘허구’를 창조한다. ‘허구’는 작가가 추구하는 이상적 가치를 공동체의 보편적인 소망으로 확대하기 위해 매개되어야 할 공간이 된다. 근대계몽기라는 시대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허구를 통해 모색하고자 한 새로운 가능성은 ‘계몽’과 ‘독립’ 등의 사회적 가치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이상에 감응하고 이에 동참할 주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독자가 그 가치를 깨닫고 내면화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형식이 ‘동경의 형식’이다.

루카치에 의하면, 동경은 잃어버린 조국으로 되돌아갈 길을 찾는 행위를 구성하는 형식을 뜻한다.¹⁵⁾ 문체적 개인의 내적 형식과 달리 동경의 형식은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집단의 이상을 담지한다.

15) 이창민, 「『꿈하늘』의 구성과 문체」, 『국어문학』 제36권, 국어문학회, 2001; 한금윤, 「신채호 소설의 미적 특성 연구-〈꿈하늘〉과 〈용과 용의 대결전〉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1998; 한태규, 「신채호 소설의 환상성 연구-〈꿈하늘〉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제14호, 구보학회, 2016

16) 게오르크 루카치, 홍성광 옮김, 『영혼과 형식』, 연암서가, 2021, 221면.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자아는 국가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정체성, 즉 집단적 정체성에 해당한다. 허구를 생성하기 위한 방식은 근대적 문학의 글쓰기를 지향하나, 허구라는 공간을 구축하는 형식은 집단적 이상을 구현하는 주체를 생성한다. 이러한 면에서 「꿈하늘」은 근대적인 개인을 창조하는 근대 문학의 글쓰기 단계로까지는 이행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이야말로 근대로의 이행을 꿈꾸던 근대계몽기의 소설로서의 「꿈하늘」의 특성이 보다 잘 드러나며, 이에 주목할 때 문학사적 연속성을 담보할 텍스트로서의 「꿈하늘」의 문학사적 가치를 재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규약의 위반에서 발생한 허구의 공간

「꿈하늘」에는 지옥과 천상, 전대의 영웅을 만나는 환상적인 공간으로의 ‘꿈’이 나타난다. 그러나 꿈 공간을 차지하는 비현실적 요소 대신 서사를 진행시키는 충동과 그 과정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꿈하늘」이 국민을 계몽하고 국가의 이상을 건설하기 위해 기획된 서사라 할 때, 이 공간은 “욕망의 투사를 위한 스크린”¹⁷⁾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때 환상은 주체의 욕망을 무대화하는 장소이자 실제적 현실과의 관계를 구성하는 실체가 된다. 즉 환상은 현실의 경계를 붕괴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정치적 장치, 곧 허구가 된다. 여기서 허구란 “규정된 가능성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을 상상하는 영역”이자 “불가능한 것을 통해 진리를 모색하는 ‘꿈’의 다른 이름”¹⁸⁾을 뜻한다. 정신분석학에서 ‘꿈’은 억압된 욕망을 승화하는 장치로 해석하지만 「꿈하늘」의 ‘꿈’을 ‘현실에서 불가능한 소망을 드러내는 심리적인 장치’¹⁹⁾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꿈’은 ‘시대적 돌

17) 슬라보예 지젝, 김소연·유재희 옮김, 『뼈딱하게 보기』, 시각과언어, 1995, 28면.

18) 알랭 바디우, 서용순 옮김, 『투사를 위한 철학 정치와 철학의 관계』, 오월의 봄, 2013, 24면.

과구를 찾기 위한 전략²⁰⁾을 찾기 위한 사유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꿈하늘」이 활용하는 허구의 양상은 근대계몽기의 신소설과는 차이가 있다. 근대계몽기의 신소설은 당대의 현실을 사실과 같이 그려냄으로써 현실의 감각을 재현하곤 했다. 즉 허구성이 비현실적인 환상적 허구로부터 사실에 기반한 허구로 변화하는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²¹⁾ 그러나 「꿈하늘」은 오히려 환상적 허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현실의 장벽에 가려진 삶의 가능성을 실험해 나간다. 즉 「꿈하늘」의 허구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삶을 실현해 보고, 이를 민족정체성의 확립으로까지 효과화하는 정치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로써 현실의 논리 바깥에서 작동하는 꿈 공간은 불가능성을 공동의 가능성으로 전환할 힘을 보유하게 된다. 「꿈하늘」은 그 가능성이 작가와 같은 특정 개인에게 귀속하지 않기 위한 위반의 장치를 두 가지 마련한다.

먼저, 창작의 의도가 뚜렷한 소설의 경우 대개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의미가 동일시된다. 「꿈하늘」은 작가의 사상이나 시대의 요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소설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해석의 규약에 기대어 연구되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를 때, 「꿈하늘」을 자전체 소설로 보는 견해도 있다.²²⁾ 유사하게, 주인공 ‘한놈’을 신채호의 별칭으로 보고 「꿈하늘」의 독법을 사소설과 유사하다고 본 연구도 있다.²³⁾ 이때 「꿈하늘」은 ‘저자, 화자, 주인공의 동일성이 확립하지 않지만, 저자와 주인공의 유사성을 담보한 텍스트’²⁴⁾와 같이 해석된다. 「꿈하늘」 ‘序’의 서술자와 주인공이 ‘한놈’이라는 점, ‘한놈’이 “乙支文德을 崇拜”(519면)하며 “『四千載第一偉人乙

19) 이상진, 앞의 논문, 90면.

20) 한태구, 앞의 논문, 292면.

21) 정영진, 「근대 초기 소설의 허구성의 변모 양상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71호, 현대소설학회, 2018, 458면, 480면.

22) 이상진, 위의 논문, 88면.

23) 방민호, 앞의 글, 135면.

24) 필립 르윈, 윤진 옮김, 『자서전의 규약』, 문학과지성사, 1998, 35면.

支文德』이라 한 조그마한 冊子”(520면)를 지었다는 것과 작가의 사적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은 일정 부분 타당한 면이 있다.

그러나 「꿈하늘」은 작품 일부에 드러난 작가와 주인공의 유사성만으로 해석을 환원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序’의 ‘한놈’과 작가 ‘신채호’의 유사성이 있지만, 「꿈하늘」이 그리는 현실은 외부 지시 대상을 상징하기 어려운 환상의 사공간이다. 또한 두 대상의 유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서술 주체의 지위가 공고해야 하는데, 「꿈하늘」의 ‘序’는 이 공식을 위반하는 창작 방법을 상세히 제시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꿈하늘」은 작품을 지배하는 저자라는 공식을 위반한다.

다음으로, 「꿈하늘」에 나타나는 위반의 형상은 작가의 권력을 해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전대의 형식 파괴로까지 이어진다. 주지하다시피 「꿈하늘」은 몽유록의 구조와 닮았으면서도 그것을 구성하는 규약에서 벗어난 작품이다. 대개 1900년대 소설에서 몽유 형식은 작가가 현실에서 분리된 세계를 완전한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이념을 펼치기 위해 활용되었다.²⁵⁾ 계몽의 의도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그 세계를 완벽히 통치할 수 있는 형식을 유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데 「꿈하늘」은 현실과 꿈의 경계, 꿈의 내용을 매개하는 자의 위치를 모호하게 하여 의미의 안정성을 흔드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규칙들은 기원에 놓인 글쓰기를 파괴하며 ‘문학의 공간’²⁶⁾을 개방한다. 이처럼 「꿈하늘」에 나타난 규약의 위반을 세밀히 이해하기 위해 ‘序’를 면밀히 독해할 필요가 있다.

『꿈하늘』이라는 이 글을 짓고 나니 꼭 讀者에게 할 말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一. 한놈은 元來 꿈 만흔 놈으로 近日에는 더욱 꿈이 만허 긴 밤에 긴

25) 권보드래, 앞의 책, 180면.

26) 모리스 블랑쇼, 『문학의 공간』, 이달승 역, 그린비, 2016, 58면.

잠이 들면 꿈도 그와 갓이 길어 잠과 꿈이 서로 終始하며 또 그 써만 안이라 곳 멀건 대낮에 안저 두 눈을 멀둥멀둥히 뜨고도 꿈 갖흔 디경이 만허 님나라에 들어가 檀君께 절도 하며 번개로 칼을 치며 平生 미워하는 놈의 목도 써어보며 飛行機도 안이 타도 한몸이 헐헐 날너 萬里天空에 돌아도 단이며 놀앙이 검덕이 신동이 불근동이를 한집에 모아 노코 노래도 하여 보니 한놈은 발서부터 꿈나라의 백성이니 讀者 여러분이여, 이 글을 꿈꾸고 지은 줄 아지 말으시고 곳 꿈이 지은 줄로 아시압소서.

二. 글을 짓는 사람들이 흔히 排鋪가 잇서 문저 머리는 엇더케 내리리라, 가온대는 엇더케 버리리라, 쪼리는 엇더케 마르리라는 大意를 잡은 뒤에 붓을 댈다지만, 한놈의 이 글은 아모 排鋪 업시 오직 붓쑈 가는 대로 맥기여 붓긔치 하늘로 올라 가면 하늘로 썰어 올라가며, 쌍속으로 들어가면 쌍속으로 썰어 들어가며, 안지면 썰어 안지며 셔면 썰어 셔서 마되마되 나오는 대로 지은 글이니 讀者 여러분이시여, 이 글을 볼 쑈에 압뒤가 맞지 안는다. 위아래가 文體가 달다 그런 말은 말으소서.

三. 自由 못하는 몸이나 붓이나 自由하자고 마음대로 놀아 이 글 속에 美人보다 향내나는 꽃과도 니야기하며 평시에 사모하던 옛적 聖賢과 英雄들도 만나보며 올흔팔이 왼팔도 되야 보며 한놈이 여들 놈도 되어 너 무 事實에 각갑지 안한 詩的 神話도 잇지만 그 가온대 들어 말한 歷史上 일은 讖사이 古記나 三國史記나 三國遺事나 高句麗史나 廣史나 羅史 갖흔 속에서 參照하야 쓴 말이니 讀者 여러분이시여, 석지 말고 갈너 보시소서. 讀者에게 말삼은 쑈났습니다.(513면, 굵은 부분 저자 강조)

「꿈하늘」 ‘序’에서 ‘한놈’은 독자에게 ‘세 가지 말삼’을 전한다. ‘一’에서 ‘한놈’은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의 위치에 관해 말한다. ‘한놈’은 자신을 꿈을 전달하거나 창작한 자가 아니라고 하며, 「꿈하늘」은 ‘꿈이 지은 것’이라고 말한다. 꿈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꿈자만이 현실의 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런데 ‘한놈’은 ‘꿈’이 그 내용을 지었다고 말하며 서술대상과 주체의 경계를 흔들어 버린다. 이때 ‘한놈’은 ‘꿈’이라는 무대가 밖

으로 열리기 위해 수반되어야 할 존재적 형상이지 그것을 초과하는 의미로 자리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자면, ‘한놈’의 몸은 꿈을 공적으로 소통하는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무대인 것이다. 이렇게 ‘한놈’은 자기 자신을 꿈의 기원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며 꿈 자체가 스스로 의미화하는 열린 공간으로, 꿈의 주인이 될 수 없는 무력한 것으로 만든다.

‘二’는 「썸하늘」의 재현 과정을 논한다. ‘二’에서 ‘한놈’은 ‘머리, 가운데, 소리’를 언급하며 ‘글 짓는 사람들’이 흔히 행하는 구상 작업에 관해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설은 작가가 구상한 사유를 언어로 형상화하는 과정을 거쳐 창작되는데, ‘글 짓는 사람들의 排鋪란 그러한 이중의 미메시스를 의미한다. 그러나 ‘한놈’은 「썸하늘」은 일반적인 작법과 달리 ‘붓짓이 가는 대로’ ‘지은 글’이라고 말한다. 즉 「썸하늘」이 이중의 미메시스를 거치지 않은 채, ‘썸’이 스스로 현시한 텍스트임을 분명히 한다. 이는 작가의 절대적 지위를 파괴한 첫 번째 규칙에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첫 번째 규칙에 따라 작품을 생산하는 작가가 공백이 될 때, 꿈을 조직하는 언어는 자기 스스로 웅얼거리며 발화할 힘을 얻게 된다. ‘二’에 나타나는 붓의 움직임은 언어들이 스스로 유희하며 의미를 현시하는 글쓰기를 은유한다. 이와 같이 언어가 스스로 발화하는 공간은 글쓰기의 실천이 일어나는 경계에서 발생한다. 이 경계는 안과 밖이 서로 침투하는 공간에 위치하는데, ‘一’의 ‘썸과 한놈’, ‘二’의 ‘한놈과 붓’의 관계가 형성하는 좌표가 이에 대응한다.

작가가 작품 뒤로 물러나며 발생한 글쓰기에 따라 기존의 문학적 규약들을 부정하며 새롭게 문학의 공간이 탄생한다. ‘三’에서 ‘한놈’은 ‘二’에서 말한 ‘붓의 움직임’을 ‘自由와 연결한다. 이에 따라 ‘붓’이 창조한 문학의 공간은 ‘몸’과 달리 현실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의 공간이 된다. 그리고 이 자유는 현실의 경계 바깥을 상상하는 허구와 연결된다. ‘三’에서 허구는 ‘事實에 각감지 안한 詩的 神話로 정의된다. 주목할 점은 허구라는 용어를 사실 또는 역사와 변별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다. 1900~1910년대의

사실과 허구는 오늘날과 다른 의미장 안에 속했다. 여기서 허구는 ‘믿을 수 없는 거짓’²⁷⁾과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의미 사이에 존재한다. 따라서 한놈은 독자에게 실제 일어난 일인 ‘역사’와 ‘허구’를 분리하여 읽을 것을 요구한다. 이는 독자가 역사적 사실을 꿈처럼 비현실적인 사건으로 수용할 것을 우려한 데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쑤하늘」에서 역사는 허구적 사건 내부에서 발화되기 때문에 허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허구는 한놈의 우려처럼 역사나 사실의 가치를 격하하지 않고, ‘사실과 가상이 결합된 미적 상상력’²⁸⁾을 바탕으로 하여 잠재된 세계를 현재화한다. 이를 위해 「쑤하늘」은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시공간을 창조함으로써 현실 세계가 주장하는 직선적이고 필연적인 시간 논리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가능성의 체제를 벗어날 때, 허구는 현실 논리 바깥에 존재하던 잠재적 삶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소환할 수 있다. 「쑤하늘」이 담고자 한 ‘새로운 가능성’은 지나간 역사에 토대를 둔다는 점이 독특하다. 즉 허구는 망각되었거나, 망각되어 가는 역사를 현재화하고, 그것에 담긴 현재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로써 허구는 사실과 융합하여 시대의 소망을 더욱 진실하고 절실한 것으로 만든다.²⁹⁾

「쑤하늘」의 ‘序’는 문학적 글쓰기로 이행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규약의 위반을 제시한다. 이는 확정된 가능성의 세계를 파괴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현재화할 힘을 지니는데, 이 힘을 전달하기 위해 매개해야 할 장치가 허구이다. 이러한 「쑤하늘」의 정치적 상상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허구라는 장치 내부에 작동하는 형식을 살펴봐야 한다. 여기서 형식은 허구

27) 권보드래, 앞의 책, 143면.

28) 한금윤, 앞의 논문, 151면.

29) 이러한 점에서 「쑤하늘」에서의 허구는 신체호가 역사적 서술을 개혁하는 데에 활용한 방식과도 맞닿는다. 신체호는 잠재된 가능성을 가시화하는 인과성을 통해 역사서술 방식을 개혁한다. 「쑤하늘」은 허구의 공간에서 이와 같은 방식을 활용하면서 환상적 허구가 현실과 결합한다.

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 정치적 힘을 현실화하기 위한 계몽의 일환으로 작동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꿈 공간에서 구성되는 내적 형식과 기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3. 동경의 형식과 영웅의 모험

「썸하늘」은 입몽 없이 꿈세계로 진입하는 구성을 보인다. 꿈은 ‘한놈’의 내부에 잠재된 욕망을 투영하기 위해 설정된 공간이다. 정신분석학에서 욕망은 현실에서 결여된 것,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는 부정적 가치가 덧붙는 대상이다. 현실 논리가 인간의 욕망을 지속적으로 억압할 경우, 인간은 광기에 사로잡히게 된다. 광기의 징후에서 벗어나기 위해 꿈-공간은 압축과 전치를 통해 억압된 욕망을 표출하곤 한다. 이때 꿈은 주체의 욕망을 뒤틀고 왜곡함으로써 욕망의 원본을 알아보기 어렵게 만든다. 이질적인 이미지들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꿈은 현실의 논리나 객관적인 시점에서 비논리적이고 모순적인 대상으로 치부된다.

「썸하늘」에 나타난 초현실적인 표식에 주목할 때, ‘꿈’은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꿈과 별반 다르지 않다. 「썸하늘」에 재현된 꿈의 이미지는 현실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할 경우, 「썸하늘」의 ‘꿈’은 개인의 좌절된 욕망을 승화하는 장치라는 의미로 한정된다. 「썸하늘」의 ‘꿈’은 현실과 비현실이 뒤섞인 이미지로 가득 차 있고, 주인공 ‘한놈’의 욕망을 투명하는 스크린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꿈’의 역할은 정신분석학의 꿈과 구조적 유사성을 지닌다.

그러나 「썸하늘」의 ‘꿈’은 정신분석학의 논리 안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다. 「썸하늘」에서 ‘꿈’은 현실과의 경계가 무화된 가상의 공간이며, 주체의 욕망을 깨닫고 이를 되찾는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 ‘꿈’에 담긴 욕망

은 주체가 추구해야 할 대상이자 꿈 안에서 되찾은 대상이 된다. 즉 ‘한놈’은 ‘꿈’을 통해 역사를 현재화하며 자신이 욕망하던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그렇게 되찾은 욕망은 가능성의 세계를 미래로 기투하는 정치적 힘으로 연결된다. 이처럼 「썸하늘」에서 ‘욕망’은 도달할 수 있는 대상이자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는 힘이며, ‘꿈’은 ‘욕망’이 생성하는 가능성을 구현하는 공간이 된다.

‘꿈’과 ‘욕망’에 이와 같은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동반되는 형식이 ‘동경의 형식’이다. 동경의 형식은 생생한 꿈을 통해서만 심연에 가라앉아 있던 자아를 찾아내는 기능을 한다. 「썸하늘」의 ‘꿈’은 내면 깊숙이 은폐되었던 ‘한놈’의 욕망을 일깨우며 그것을 현재화할 자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동경의 형식’이 된다. 동경의 형식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망을 올바르게 포착할 시선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꿈은 ‘한놈’의 몸을 무대로 삼아 꿈의 내용을 현시한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한놈’이 꿈을 꾸는 동시에 꿈에서 분리되어 자신을 관찰할 위치로 이동하도록 한다. 이로써 ‘한놈’은 자신의 욕망을 적절히 바라볼 거리를 확보하며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들어갈 기회를 획득한다.

내면의 풍경을 응시할 거리를 얻었으나 초반부의 ‘한놈’은 자신의 꿈에 나타난 사건들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한다. ‘한놈’이 꿈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목격한 장면은 하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다. ‘한놈’은 눈앞의 광경에 호기심을 느끼면서도 그 사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회피한다. 왜냐하면 초반부의 ‘한놈’에게 싸움은 눈 뜨고 보기가 힘든 참혹한 광경에 불과할 뿐이고, 어떠한 의미로도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숙하고 무지한 ‘한놈’은 스스로 꿈을 해석할 시선을 확보할 역능을 지니지 못한다. 따라서 ‘한놈’에게는 자신의 심연에 놓인 욕망을 올바르게 일깨울 조력자가 필요하고, 무지(無知)에서 지(知)로 이행할 배움의 여정이 필요하다.

(1) 그 소리 더욱 압하고 질리어 頑惡한 돌이나 나무들도 모다 일어나 슬픔으로 서로 화답하는 듯하더라. 쫓송히 위에 안졌던 한놈은 두 노래 쫓케 크게 늑기여 쌍에 엮들여서 울며 일어나지 못하니 쫓송이가 또 가 만히 「한놈아」 불으며 꾸짖되

「울음을 썩 그쳐라. 世上일은 슬다고 닛는 것이 안이니라.」

하거늘 한놈이 고개를 들어 左右를 살피니 악가 노래하던 大將이 곳 압헤 섰더라. (517면.)

(2) 한놈은 대개 처음 이 누리에 내려올 쟈에 情과 恨의 몽텃이를 가지고 온 몸이라. 나면 갈 곳이 업스며, 들면 잘 곳이 업고, 울면 미들만한 니가 업스며, 굴면 사랑할 만한 아오가 업시 한놈으로 와 한놈으로 가는 한놈이라. 사람이 고되면 근본을 생각한다더니 한놈고 그리함인지 하도 의지할 곳이 업스매 생각하는 것은 조상의 일 썩이라. (중략) 五千年 時間 속으로 오락가락하야 꿈에라도 우리 先代의 큰 사람 한번 만나고자 그리던 마음으로 이제 크나큰 乙支文德을 맞난 판이니 못고 십은 말이며 하고 십흔 말이 엇지 한아 둘썩이리오만은 이상타 그의 靈界에 對한 니 야기를 들으며 골이 펼덕펼덕하고 가삼이 더근배근하여 아모말도 물을 경황이 업고, 의심과 무섭이 五月 하늘의 구름 모히듯 하더니 드대여 心身의 이상한 作用이 닐다. (520면.)

동경의 형식이 지향하는 모험이 내면을 향하고 있다면, 그 형식을 만들어 가는 주체는 ‘한놈’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꿈하늘’ 초반에 ‘한놈’은 스스로 그 형식을 구성하는 주체로 형상화되지 않는다. 꿈이 시작된 시점의 ‘한놈’은 자신이 동경하던 꿈을 오롯이 짊어지고 버틸 만큼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의 ‘쌍에 엮들여서 울며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나 (2)의 ‘情과 恨의 몽텃이’나 ‘의심과 무섭’은 ‘한놈’의 미숙함을 확인할 수 있다. 동경의 형식은 자신이 동경하는 바 성취할 때까지 모험을 중단하지 않는 자아를 요구한다. 이러한 초인적인 힘은 이상의 무게를 감당하고 기

꺼이 책임질 수 있는 자에게서 발휘된다. ‘한놈’의 동경이 삶에 현실화될 위대한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한놈’이 강인한 주체로 거듭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체의 각성을 위해 도입된 인물이 ‘꽃송이’이다.

‘꽃송이’는 꿈의 처음부터 등장하여 ‘한놈’의 모험을 안내하거나 그가 만나야 할 인물의 걸음으로 데려가는 존재이다. 이와 더불어 ‘꽃송이’는 ‘한놈’이 감상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며 그의 동경이 낭만적인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독려한다. (1)에 나타나듯이 ‘꽃송이’는 ‘한놈’이 격한 감정에 사로잡힐 때마다 등장하여 발화한다. ‘꽃송이’의 부름이 있을 때마다 ‘한놈’은 슬픔이나 두려움 등의 감정에서 빠져나와 현실을 직시한다. 그렇게 ‘꽃송이’의 조력을 받으며 떠나는 여정 속에서 ‘한놈’은 자신이 동경하던 바를 깨닫는다.

(2)에서 ‘한놈’은 고단한 삶을 지탱하기 위해 찾던 ‘근본’이 ‘조상의 일’이었음을 깨닫는다. 여기서 조상은 을지문덕, 강감찬과 같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낸 역사적 영웅을 뜻한다. 그런데 ‘한놈’이 만나는 역사적 영웅들은 ‘先代의 큰 사람’에 속한다. 현세를 떠난 영웅은 현실 세계에서는 말할 권리를 상실한 존재이다. 그러나 ‘꿈’과 같이 현실의 논리에서 벗어나 공간에서는 현실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자들의 목소리를 소환할 수 있다. 그렇게 과거에 속한 영웅의 시간이 ‘한놈’의 현재와 통접되면서 역사적 영웅들의 말들은 ‘한놈’이 속한 언어 공동체 안에 포함된다. 즉, 영웅과의 만남을 통해 ‘한놈’은 자신의 욕망을 파악하고, 자신이 동경하고 달성해야 할 과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한놈’이 동경하는 대상의 무게를 감내할 만큼 성장했을 때, ‘꽃송이’는 ‘한놈’의 여정에서 물러난다. 이는 ‘한놈’이 여섯의 ‘한놈’과 님나라로 떠난 이후 ‘꽃송이’의 발화가 등장하지 않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경의 형식은 ‘한놈’이 강인한 주체로 성장하면서 사라지는 형식이 아니다. ‘한놈’이 여섯의 ‘한놈’과 떠나는 모험 역시 동경의 세계 ‘님나라’로 가는 여정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후반부의 모험은 동경의 형식에 담고자 한 영혼, 그 정신이 무엇인지 더욱 선

명히 드러나는 사건이 된다. 이 정신에 도달할 때, 「썸하늘」에 담긴 계몽의 기획이 뚜렷해진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 「썸하늘」 후반부의 모험에서 전달하고자 한 이상적인 주체의 자질과 계몽의 설계리는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4. 이상적 주체(들)의 확립과 계몽의 발아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은 실패나 유혹과 같은 역경을 동반하는 험난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모험을 떠나는 주체는 그 과정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위험과 혼란을 알지 못한 채 그 여정을 시작한다. 「썸하늘」의 ‘한놈’들이 이와 유사한 상태에서 모험을 시작한다. ‘한놈’들의 모험은 이상을 실현하는 어려움을 그리는 동시에 그러한 난관을 모두 극복하는 주체의 형상을 발견하는 과정을 그려낸다. 여기서 「썸하늘」에 담긴 계몽의 기획이 뚜렷해진다. 진정으로 동경의 형식을 내면화한 자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그 여정을 종결해야만 하는 자신을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삶의 무게를 감수할 주체, 그리고 그러한 주체를 형성하는 자질들을 전달하기 위해 후반부의 여정이 시작된다. 이 후반부의 여정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놈’이 분열되는 장면에서 주목해야 한다.

(1) 꽃송이가 식이는 대로 동편에 불너 한놈을 얻고, 서편에 불너 한놈을 얻고, 남편 북편에서도 각기 다 한놈을 얻은지라. 세여본즉 원래 잇던 한놈이와 불러나온 여섯 한놈이니 합이 일곱 한놈이러라. 낮고 갖고 꼴도 갖고 목덕도 갖지만 일흠이 갖으면 서로 분간할 수 업슬까 하여 차례로 일흠을 지어 한놈 듯놈 셋놈 넷놈 다섯놈 여섯놈 잇놈이라 하다. (538면.)

(2) 「世上이 元來 이런 세상인가. 한놈이 동무를 못 얻음인가. 말 짜드시 맹세하고 오던 놈들이 고되다고 달아난 놈고 잇고 돈 잇다고 달아난 놈도 잇고 할 수 업다 달아난 놈도 잇서, 일곱놈에 나 한놈 남엇고나.」(544면.)

(1)은 ‘한놈’이 자신이 욕망하는 바를 깨닫고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 전, 그 여정을 같이 할 동료들을 모으는 장면에서 해당한다. ‘꽃송이’의 말대로 ‘한놈’은 사방에서 ‘한놈’들을 불러낸다. 이 장면에서 여섯 ‘한놈’은 각기 다른 곳에서 온 대상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생김새부터 지향하는 삶의 목적까지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들을 서로 다른 존재로 분간하기가 애매하다. 여섯 ‘한놈’을 변별할 징표는 개인의 고유성과는 무관한 임의로 발급된 숫자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또한 「솜하늘」의 ‘序’에서 ‘한놈이 여들 놈’이 된다는 대목까지 고려할 때, 이들은 ‘한놈’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아, 즉 ‘한놈 안의 타자’³⁰⁾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한놈’들은 ‘님나라’를 향하는 모험 초반에는 동일한 목적을 지닌 자들이다. 만일 이들이 삶 속에 동경의 형식을 잘 정박하고 그것에 담긴 정신을 내면화했다면, 분열된 ‘한놈’들은 모두 ‘님나라’에 진입했을 것이다.

그러나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래의 목적을 완수한 것은 오직 처음의 ‘한놈’뿐이다. 여섯의 ‘한놈’의 이탈은 동경하는 바를 성취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여섯의 ‘한놈’은 돈이나 삶의 편리함, 질투나 사랑 등 각각 다른 이유로 ‘님나라’를 찾아가는 여정을 중단한다. 오로지 처음의 ‘한놈’만이 삶에 도사리는 유혹을 모두 물리쳤기 때문에 자신의 이상세계에 도달한다. 그런데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여섯 ‘한놈’이 ‘한놈’ 내부에 존재하는 자아를 각각 대변한다고 볼 때, 여섯 ‘한놈’의 중도탈락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대업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자신이 걸어가던 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자신의 내부에

30) 최현주, 앞의 책, 141면.

인간적인 욕망이 새어 나올 만한 작은 틈을 허용한다면, 자신이 성취하고자 한 원대한 계획이 모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유혹당할 만한 요소들을 점검하고 경계하며, 이를 하나씩 소거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여섯 ‘한놈’의 이탈은 자신이 동경하는 바에 당도할 진정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통과제의가 된다. 즉 「썸하늘」 후반부의 여정은 대의를 방해할 모든 인간적인 욕망을 덜어내는 과정이 된다.

(2)에서 ‘한놈’은 동경하는 이상을 함께 달성할 동무가 이 세계에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탄식한다. 여기서 ‘한놈’은 동일한 목적으로 시작했어도 혼자 남은 자신을 바라보며 고독과 슬픔을 느낀다. 이는 세계와 합일될 수 없음을 인지한 근대적 개인과 유사하면서도 다르다. ‘한놈’의 고독은 영웅의 과업을 달성하며 ‘원형적 고향³¹⁾에 당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고독이기 때문이다. 동경하던 가치를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고독은 영웅이 동경하던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대상이며, 이러한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영웅만이 잃어버린 고향에 귀환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최후의 ‘한놈’은 이전과 달리 공동체의 운명을 짊어질 주인공으로 그 의미가 확장된다.

「하늘이 보였고, 해와 달이 네모지며 쏘 새카마니, 이것이 넘나라의人間과 다른 特色임닛가?」

한대 그이가 째짝 췌며

「이것이 무삼 말이나. 하늘이 풀으고 해와 달이 둥글며 흰은 넘나라나人間이 다 한가지인데 지금 이러케 된 것은 큰 變입니다.」 (중략)

한놈이 이에

「내 힘은 더 쓸 수 업스나 쏘 내 뒤를 니어 이대로 힘쓰는 이 잇스며 슬마 하늘이 푸르러질 날이 잇겟지.」

31) 게오르그 루카치, 반성완 옮김, 『소설의 이론』, 심철당, 1998, 30면.

하고 이 뜻으로 가가푸리를 지었는대 (556-557면.)

그러나 「썸하늘」은 ‘님나라’에 도착한 ‘한놈’이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낭만적인 결말로 이야기를 종결하지 않는다. ‘한놈’이 본 ‘님나라’는 ‘하늘이 보였고 해와 달이 네모지며 쏘 새카만’ 모습을 하고 있다. 처음에 ‘한놈’은 이것이 ‘人間과 다른 特色’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나 ‘그이’와의 대화를 통해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깨닫는다. 이로써 ‘한놈’은 ‘님나라’의 이상을 해결해야만 하는 새로운 과업을 부여받는다. 즉 ‘님나라’에서 또 다른 영웅의 임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플롯은 한 사건의 종결로 영웅의 책무가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며, 영웅에게 자신이 속한 세계의 변화를 민감하게 읽고, 상황에 맞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썸하늘」이 미완의 서사라는 점에서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우나 다음의 측면을 고려할 때, 「썸하늘」은 단 한 명이 세계의 위기를 구출하는 신화적인 영웅을 기획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썸하늘」은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 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서사한다. 아울러 영웅으로 성장한 ‘한놈’이 혼자서 ‘님나라’의 변고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형상화하는 데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실패로부터 ‘한놈’은 자신의 뒤를 잇는 ‘힘쓰는 이들이 있어야만 ‘하늘이 푸르러질 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단계에 이르러서 「썸하늘」의 계몽의 기획이 좀더 명료해진다.

‘한놈’이 ‘님나라’에서 마주한 상황은 한 명의 영웅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세계라는 거대한 구조는 한 개인의 싸움만으로는 진복하고 파괴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썸하늘」의 영웅은 영웅들의 연대, 즉 공동체의 문제로 확장된다. ‘님나라’의 변고가 사라지고 ‘하늘이 푸르러질’ 미래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더 많은 ‘한놈’들이 등장해야 한다. 따라서 작품 말미에 제시된 ‘한놈’은 미래 세대들에게 ‘한놈’의 여정을 다시 한번 떠날 것을 요청한다. ‘한놈’들이 세계에 탄생하고 함께 연대할 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깃든 세계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한놈’의 여정은 미래의 ‘한놈’들이 거쳐야 할 모험을 미리 제시하며 그것을 뒤따르도록 계획된 장치이다. 이는 작품 내부에 산개되었다가 그 모험을 추적하는 자들의 삶에 현재화된다. 현재화되는 ‘한놈’ 욕망은 모험을 끝까지 함께하는 자들의 욕망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텍스트에서 삶의 실천으로 욕망이 이행될 때, 「꿈하늘」이 기획한 정치적 상상력이 작동할 수 있다. 이것이 「꿈하늘」에 잠재된 계몽의 기획이 현재화하는 방식이며, 평범한 영웅들이 함께 연대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는 정치적 힘이다.

5. 결론

지금까지 「꿈하늘」이 계몽의 기획을 이행하기 위해 활용한 문학적 장치들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꿈하늘」은 국가의 실존적 위기가 당도한 시대에 이를 극복하고자 한 시대의 고민이 담겨 있다. 이는 근대계몽기에 등장한 소설이 공유하는 담론성이다. 「꿈하늘」은 계몽이라는 시대의 담론을 구현하기 위해 세 가지 방식을 활용한다. 첫째, 문학에 작용하던 규약을 위반하며 문학적 글쓰기를 수행한다. 「꿈하늘」의 ‘序’는 작가의 권위를 부정하고, 이전 문학의 관습적 형식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위반을 실천한다. 이를 통해 「꿈하늘」은 근대적인 문학-되기를 수행하며, 자신의 정치적 상상력을 극대화할 허구의 영역을 개방한다. 둘째, 「꿈하늘」은 ‘한놈’이라는 평범한 개인이 영웅으로 성장하는 모험을 서사하며 ‘동경의 형식’을 생성한다. 욕망을 투영하는 꿈 공간과 ‘동경의 형식’이 결합하며 ‘한놈’은 자신이 성취해야 할 원대한 계획을 깨닫고, 이를 실천할 자로 성장하게 된다. 셋째, 영웅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과 정신을 전달하며 영웅들이 연대하는 미래를 꿈꾼다. 여기서 「꿈하늘」에 설계된 계몽의 기획이 명료해진다. 「꿈하늘」은 세계의 문제가 신적인 한 명의 영웅으로 해

결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 의식을 강조한다. 즉, 「썸하늘」이 형상화하는 영웅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공동체의 영역으로 확장된다. 이것이 「썸하늘」이 그리는 계몽의 기획이며 그것이 구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상상력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썸하늘」이 근대계몽기 서사 형식에서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가를 재고해야 한다. 「썸하늘」은 전통의 서사 양식과 근대적인 문학 형식의 혼합, 그리고 근대적인 계몽 기획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양상으로 문학적 글쓰기를 실현한다. 이러한 복합성으로 인해 「썸하늘」은 소설이라 할 미적 수준에 이르지 못한 작품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그러나 「썸하늘」에는 환상적인 허구 공간에서 근대소설의 자질이 발아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序'에서 나타나듯이 「썸하늘」은 작품에서 텍스트로 이행하며 새로운 글쓰기를 시도하고 국가적 과제를 달성할 주체의 각성, 즉 계몽을 향한 상상력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로써 「썸하늘」에 나타나는 소설 형식은 전통과 근대적인 서사의 특성을 결합함으로써 근대계몽기에 등장한 소설들과는 전혀 다른 소설의 형식을 그려나간다. 이러한 특성이야말로 「썸하늘」을 근대 이전의 문학과 근대소설을 잇는 교량에 위치하고, 근대소설의 지형도에 적극적으로 편입할 정당성을 부여한다. 나아가 신채호의 문학을 이러한 문학사적 맥락에 위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텍스트에서도 이와 같은 문학적 특성을 발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신채호, 「꿈하늘」, 『단재 신채호 전집』 제7권,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2008.

2. 논문 자료

- 권영민,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 재론」, 『인문학 연구』 제17호, 경희대 인문학연구소, 2010, 5-40면.
- 김현주, 「단재 신채호 소설 〈꿈하늘〉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 『한민족어문학』 제65집, 한민족어문학회, 2013, 539-569면.
- 방민호, 「단재 신채호의 문학사적 의미-소설 「꿈하늘」에 나타난 ‘정’, ‘무정’과 관련하여」, 『서정시학』 제29권 3호, 계간 서정시학, 2019, 130-144면.
- 송은영, 「근대 소설의 역사성과 허구성 -역사와 문학의 동일성과 타자성-」, 『상허학보』 제10권, 2003, 89-116면.
- 이상진, 「신채호의 〈꿈하늘〉 연구」, 『연세어문학』 제28권,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1996, 85-109면.
- 이창민, 「『꿈하늘』의 구성과 문체」, 『국어문학』 제36권, 국어문학회, 2001, 63-76면.
- 전병준, 「신채호의 「꿈하늘」에 나타난 민족주의 연구」, 『인문논총』 제28권, 경남대 인문학연구소, 2011, 87-104면.
- 정영진, 「근대 초기 소설의 허구성의 변모 양상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71호, 현대소설학회, 2018, 451-486면.
- 정영훈, 「문학과 정치 혹은 문학의 정치; 신채호 소설의 정치적 가능성」, 『민족문학사 연구』 제46권, 2011, 120-146면.
- 조정래, 「신채호의 「꿈하늘」에 대한 연구」, 『논문집』 제21권, 서경대학교, 1993, 27-38면.
- 한금윤, 「신채호 소설의 미적 특성 연구-〈꿈하늘〉과 〈용과 용의 대격전〉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1998, 137-155면.
- 한기형, 「신소설의 양식 특질」, 『대동문화연구』 제33권,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8, 159-178면.
- 한태구, 「신채호 소설의 환상성 연구 -〈꿈하늘〉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제14호, 구보학회, 2016, 285-314면.

3. 단행본

-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2012.
- 김동식, 『한국 근대 문학의 궤적』, 소명출판, 2023.
- 김병민, 『신채호 문학 연구』, 아침, 1989.
- 김찬기, 『한국근대소설의 형성과 전』, 소명출판, 2006.
- 김현주, 『단재 신채호 소설 연구』, 소명출판, 2015.
- 양진오, 『한국 소설의 형성』, 국학자료원, 1998.
- 장노현, 『개화기의 서사 풍경』, 역락, 2019.
-
- 알랭 바디우, 서용순 옮김, 『투사를 위한 철학 정치와 철학의 관계』, 오월의 봄, 2013.
- 게오르크 루카치, 반성완 옮김, 『소설의 이론』, 심설당, 1998
- 게오르크 루카치, 홍성광 옮김, 『영혼과 형식』, 연암서가, 2021.
- 모리스 블랑쇼, 『문학의 공간』, 이달승 역, 그린비, 2016.
- 필립 르퀼, 윤진 옮김, 『자서전의 규약』, 문학과지성사, 1998.
- 로버트 솔스·로버트 켈로그, 최상규 옮김, 「서사물의 전통」, 『현대 소설의 이론』, 예림기획, 2007, 50-67면.
- 슬라보예 지젝, 김소연·유재희 옮김, 『빠딱하게 보기』, 시각과언어, 1995.

<Abstract>

A Project of Enlightenment through the Form of Transgression —a Study on ‘Kkum Haneul’

Lee, Ha-eun

Shin Chae-ho is one of the important writers in the Modern Enlightenment period. Previous research has attempted to position Shin Chae-ho, either between Classic and Modern literature based on his literary aspects or Modern Enlightenment period when discourses had been emerged intensively. It is a questionable, however, to categorize his writings into the literary history, only because they are “between modern literature and non-modern literature, between literature and non-literature.” To meaningfully position Shin Chae-ho as a literary writer in the present and within the continuity of literary history,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literary achievements and significance of his novels. To reexamine the value of Shin Chae-ho’s novels, this study focuses on how “Kkum Haneul” creates fiction by violating conventions and implementing the "form of aspiration" and its effects to realize enlightenment through fiction.

The preface of “Kkum Haneul” sets a fiction as a means of conducting experiment in thought, by using two ways of transgression. Fiction serves a space that is required to mediate to expand ideal values of author to the collective aspirations of community. According to Lukacs, the form of aspiration is necessary to embody the collective ideal required to reclaim the “lost nation.” The self that is formed in this process corresponds to a

collective identity aimed at achieving the ideals of the nation. While the way “Kkum Haneul” generates fiction reflects aspects of modern literature, its form is ultimately directed toward realizing a collective ideal. In this regard, "Kkum Haneul" demonstrates that it did not progress to the writing stage of modern literature that creates a modern individual. This very aspect, however, reveals a feature of “Kkum Haneul” as of a Modern Enlightenment period novel and the value of “Kkum Haneul” as a text implying the continuity of literary history.

key words: Modern Enlightenment period, Shin Chae-ho, “Kkum Haneul”,
fiction, transgression, form of aspiration

투 고 일: 2024년 8월 21일

심 사 일: 2024년 9월 11일

게재확정일: 2024년 9월 11일

수정마감일: 2024년 9월 25일